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2006 제1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 777 • 2013, 778 • 7427 FAX 02 • 778 • 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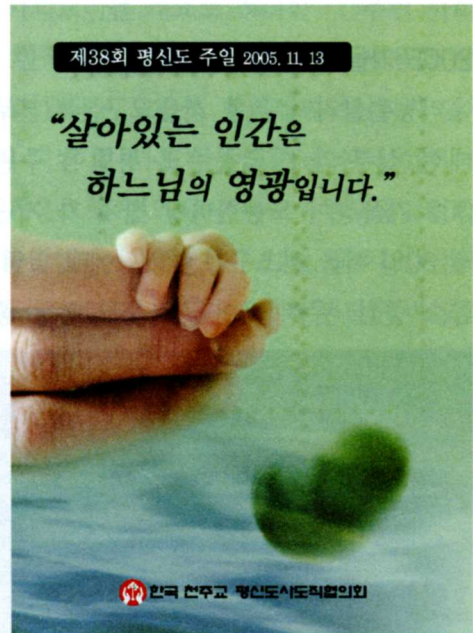
발행일 : 2006. 2. 18 발행인 : 한홍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5년 하반기 사업내용

- 제38회 평신도주일

한국평협은 지난 11월 13일 제 38회 평신도 주일을 맞아 강론자료와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하고 생명문화 건설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의 강론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복제연구와 관련 "인간배아는 존엄한 인간 생명의 시작이므로 결코 실험



☐ 실는 순서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국 사도직 단체>

- ▣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 ▣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
- ▣ 한국가톨릭 병원협회
- ▣ 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실의 연구 조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평협은 "배아가 아닌 태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교회가 지원하며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협은 또한 "생명수호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해나가야 한다"며 "인간생명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연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결코 훼손 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임을 자녀들에게 일깨워달라고 강론자료에서 강조했다.

- 2005 가을걷이 도·농한마당 잔치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서울교구본부(본부장 조대현 신부)와 한국천주교 평협이 주관한 '2005 가을걷이 도농한마당 잔치'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열려 농촌공소 중심 '우리농 마을'과 도시분당 중심



'생활공동체' 확산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한해 수확한 농산물을 봉헌하는 추수감사미사를 시작으로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온 생산자 공동체와 도시생활자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격려한 이날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쌀은 우리 생명"이라며 자신부터 쌀 소비와 우리농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한해 농사를 잘 지

어준 농민께 감사하며 함께 희망을 일궈가자고 격려했다. 미사 후 마련된 판매마당에서는 생산자 농민이 직접 올라와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전통놀이마당 등을 통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 2005년 3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의

한국평협은 지난해 11월 26, 27일 서울대교구 평협 주관으로 제3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했다. 14개 교구 평협 회장단(군종평협 불참), 7개 상임단체장 중 3명(여성협의회, 레지



오 마리에 서울 세나투스, 광주 세나투스)이 참석했으며, 이 밖에 한국평협 분과위원장, 서울평협 임원 등 70여 명이 함께 한 이날 상임위원회의는 첫날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평신도사도직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전원 참석했으며, 둘째 날 본회의에서 예산 항목간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 프랑스교회 순례단을 위한 만찬

한국평협은 103위 한국성인 중 앙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등 세 분 순교성인의 고향인 엑상 프로방스 교구 파이드 대주교 등 프랑스교회 순례단을 맞아 10월 26일 저녁 명동성당 별관에서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서

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와 30여명의 순례단을 비롯해 초청 인사와 평협 회장단, 임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린 이날 만찬은 과거 프랑스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데 대해 감사하는 자리로 마련돼 성황을 이뤘다.

- 제2회 평화독서 감상문 대회

한국평협과 평화방송·평화신문,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가 공동주최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평화 독서감상문대회'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열렸다. 시상식 내내 감동과 축하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으며 감동어린 사연의 수상작이 많이 나오는 등 가정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행사였다.

- 배아줄기세포 연구 부당성 정치권에 서신 발송

한국평협은 지난 12월 8일 배아줄기세포 연구 부당성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담은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와 사회주교위원회의 공동 발표문 전문과 발표문 발송 취지가 실린 서신을 이해찬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각 정당대표, 신자국회의원 등에 보내고 '생명윤리'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평협은 '진리에 관한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꼭

같이 적용되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확인해 공동선 증진을 위한 활동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교리학교 개설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동개최

지난해 11월 3일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평협은 사회교리학교 개설 10주년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115년간 발표된 가톨릭교회 사회교리를 개요로 정리한 '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어판 출판을 기념하며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가 2004년에 펴낸 이 책은 나온 지 1년 안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번역해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출판했다. 한국평협은 11월 제3차 상임위원회의 때 각 교구 평협에 3권씩 전달한 바 있다.

- 2005년도 가톨릭대상 시상식

한국 평협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제22회 가톨릭대상 시상식을 열고 사랑부문에 '서초장애인치과 진료자원봉사

단'에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수여했다.

입날 대상을 받은 서초장애인치과 진료 자원 봉사단은 1996년 9월 서울시 서초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래 수상 당시까지 35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일반치과에서 치료를 거절당하거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장애인 1만4천여 명에게 무료로 의술을 베풀며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진료혜택을 받은 장애인 10여명이 참석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국내 폭설피해지역 구호성금 전달

한국평협은 연말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호남과 제주지역 구호사업에 보탬 쓰기를 희망하며 광주, 전주, 제주평협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들 평협에서는 해당 교구와 협의해서 어려운 지역 본당에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전해왔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5년 하반기 사업내용

- 여성지도자 교육 5주간 실시

서울대교구 평협은 지난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5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에 본당 여성총구역장, 여성 사목위원 등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여성지도자교육을 실시했다.

본당 신자의 70%가 넘는 여성들에게 올바른 교회관과 신앙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한편, 사



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교회의 가르침과 입장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사도직 수행에 도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평신도 그리스도인, 여성의 존엄, 환경, 생명윤리, 나눔 등을 주제로 150여명이 참석했다.

- 가족사랑 등반대회

서울평협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삼성산 성지에서 '가족사랑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생명문화 건설의 중심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펼쳐진 아름다운 가정 아

름다운 세상 운동의 하나로 2회째 열린 이날

등반대회에는 350

여명이 참여하여 교구

사목국장 민병덕 신부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성지와 산을 오르며 하느님이 맺어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교구 성체대회

서울대교구는 '성체성사의 해'인 지난해 10월 13일 명동 주교좌성당을 비롯한 각 본당별로 '2005 서울대교구 성체대회' 개막미사를



봉헌하고 23일까지 11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겨레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성체대회는 개막미사를 비롯 16일 주일에는 성체성사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코자 헌혈참여와 골수 및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한생명 살리기' 서약서를 각 본당별로 봉헌했다. 22일에는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정에서 5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찬의 삶을 산 평신도들의 체험담(한희정, 김홍래, 김형선)을 듣고,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와 총대리 염수정 주교,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김은희 주교와 사제단 공동으로 장엄미사를 봉헌한 다음, 신학교 구내를 한 바퀴 돈 성체행렬을 통해 성체 안에 하나 되고, 주님께 찬미를 드리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23일에는 각 성당별로 '민족들의 복음화 주일' 미사를 겸한 성체대회 폐막미사를 봉헌했다.

- 제1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

서울평협은 제38회 평신도주일과 성체성사의 해를 기념하며 지난해 11월 14일~15일 양일간 명동 주교좌성당에서 '제1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를 개최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찬미하여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성가합창제에는 각 지구를 대표하는 15개 성가대와 명동성당 가톨릭합창단이 출연, 주옥같은 선율로 하느님을 찬미했다.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평소 교회음악을 사랑해온 성가대원들은 문화선교의 사도라는 생각을 갖고 더욱 정진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교황대사 에밀 폴체릭 대주교는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며 이 대회의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 제2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진공모전

서울대교구 평협이 주최하고 가톨릭 사진가회가 주관한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제2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2월 7일 서울명동 가톨릭회관 평화화랑에서 열렸다. 대상에 최태희 작 '파안대소'가, 우수상에는 박태호 작 '사랑해요'와 위미경 작 '예쁘게 찍어주세요'가 각각 선정돼 상을 받았다. 공모전은 11월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 아름다운 세상 등을 주제로 공모해 200여점의 출품작 중 50점을 뽑아 명동 가톨릭회관 1층 평화화랑에서



13일까지 전시해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 가정사회사목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서울평협 가정·사회사목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를 “가정과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혼과 황우석 사태가 빚어지는 등 가정과 생명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의 제1발제는 가정과 평신도사도직을 주제로 한홍순 평협 회장이, 제2발제는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윤리신학 교수 이동익 신부가 맡았으며, 가정사도직과 생명을 지킨 체험담(백낙현 부부, 김형선)으로 이어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350여명 중에는 가정과 생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찰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 2006년 사업

- 교구 신년하례식

서울대교구 신년하례미사가 4일 오전 11시 서울 혜화동 대신학교 성당에서 거행됐다. 12월 26일이 축일인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영

명축일 축하자리를 겸한 이날 미사는 김수환 추기경, 정진석 대주교, 김옥균 주교, 염수정 주교, 김운희 주교 그리고 새로이 하루 전에 임명된 조규만 주교를 비롯해 150여명의 사제와 평협 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진석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와 평신도들의 적극 협조로 성장하게 됐다”며 “이제는 아시아 전교를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김수환 추기경은 “병술년 개띠 해를 맞아 주인에게 충실한 개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충견이 되어 그 분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자”고 새해 덕담을 들려줬다.

신년인사를 통해 서울평협 한홍순 회장은 “특히 올 새해를 여느 해와는 달리 크나큰 기쁨과 희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다”며 “하느님께서 교황님을 통해 우리 교구와 한국 교회에 참으로 어진 목자이신 주교님을 한 분 더 세워 주셨음”을 기뻐한다고 말했다.

- 2006년도 제36회 서울평협 정기총회 :

제16대 서울평협 회장에 한홍순 토마스 한국외대 교수 선임

서울평협은 1월 14일(토) 명동 가톨릭회관에



서 2006년도(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16대 회장에 한홍순 토마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총회에서는 감사에 김득수, 김철환 현 감사를 유임시키고, 2005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2006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서울평협은 2006년도 활동지표를 '성체 안에 하나 되는 친교의 교회'로 정하고 시노드 정신의 구현과 신앙쇄신 등 중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와 사목국장 민병덕 지도신부도 함께 한 가운데 이날 회장 선임은 임시의장인 선거관리 위원장 오덕주 부회장이 진행을 맡았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선임에 관한 규정 제2조 4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선출에 관해서 임시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평협 회칙 부칙 제3항에 의거 2004년 1월 10일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한 "회장, 부회장 및 감사선임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교구장인 정진석 대주교가 2005년 12월 14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오덕주 부회장, 선거관리 위원으로 이윤자 부회장과 김득수 감사, 김철환 감사, 그리고 최홍준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주었다는 사무총장의 설명이 있는 다음, 오덕주 임시의장은 회장선출방법과 감사 및 부회장선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회장후보자는 본당 회장과 단체장, 상임위원들의 추천과 교구장의 지명에 의해 선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국에서 배포해서 선거일 14일 전까지 접수한 회장후보 추천서를 봉합한 상태로 인수해서 2006년 1월 4일, 이 추

천서 중 10명 이상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신원과 회원 자격 등을 파악해 1월 5일 교구장 대주교께 보고했다. 회장 선임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르면, "교구장은 3명 이내의 추천 후보자를 지명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회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돼 있고, 다만 추천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회장 당선자로 선포하게 돼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 2명을 구두 추천받아 김득수 감사와 김철환 감사를 유임시켰으며, 부회장 약간명은 신임회장이 선출된 후 신임회장이 인선을 하도록 총회의 결의로 위임했다.

이어 총대리 염수정 주교는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의 회장후보 지명서를 오덕주 임시 의장 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오 의장은 즉석에서 이를 개봉해 '한홍순 후보'를 단일 지명한다는 내용을 공개해 만장의 박수를 받았으며, 그를 당선자로 선포했다.

- 서울평협 새 회장단 구성

서울대교구 평협은 새 회장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교구장의 인준을 받은 2월 8일 오후 민병덕 지도신부를 모신 자리에서 첫 회장단회의를 열어 분과위원장 선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평협은 이번 회장단을 서울대교구의 중서울, 동서울, 서서울 등 3개 지역을 대표하는 지구 대표회장 3인과 각 지역별로 총구역장 대표 3인, 그리고 단체 대표와 직능대표로 구성했다.

회장: 한홍순 토마스

부회장: 오덕주: 여성연합회 회장, 유임
 박현정 오세피나, 13지구 총구역장
 양복심 체칠리아, 10지구 총구역장
 이기연 루치아, 6지구 총구역장
 이윤자 루치아, 유임
 정진선 유스토, 15지구 대표 총회장
 지무남 요한, 11지구 대표 총회장
 팽종섭 그레고리오, 세나투스 단장, 유임
 황기진 바오로, 2지구 대표 총회장

감사: 김득수 카롤로, 유임
 김철환 요셉, 유임

사무총장: 최홍준 파비아노, 유임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5-2차 전국 평협 상임위원회 개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명중)는 2005년 9월 3일과 4일 연기군 전의면 소재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의를 주관했다. 76명이 참석한 이번 상임위원회의 첫째 날에는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의 강의를 비롯해 전주교구 김영수 신부의 평신도사도직 관련 특강, 대전교구 강석준 신부의 청소년 관련 강의로 이어졌고, 둘째 날에는 분임토의와 상임위원회의를 마치고, 파견미사를 봉헌했다.

- 제6회 교구장 배 테니스 대회
 대전 평협은 2005년 10월 8일 충남대 테니스코트장, 해양연구원 테니스장에서 21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6회 교구장배 테니스대회를 개



최했다. 단체 3복식 예선리그 후 1부, 2부 토너먼트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논산 대건고등학교가 우승했으며, 공주 신관동 성당이 준우승을, 그리고 천안 쌍용동 성당과 범동성당이 각각 3위를 차지했다.

- 천안, 홍성, 서산지구 제1회 구역장, 반장의 날
 주제 :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루가 15, 23-24)

일시 : 2005년 10월 29일 14:00~18:00

장소 : 천안 복자여고 마리아홀

참석 : 천안, 홍성, 서산 지구 구역장, 반장, 지구좌 신부님들 약 600여명

시상 : 천안, 서산, 홍성 지구 모범 구역장, 반장 29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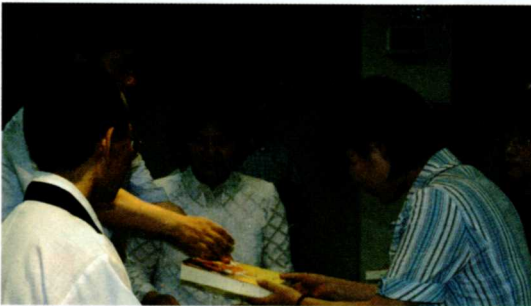


- 1부: 성경안치식 - 복음낭독 - 묵상 - 전례
무용 - 주제강의
- 2부: 시상식 및 체험담 발표
- 3부: 레크레이션과 초대가수 공연
- 4부: 음식 나눔

- 2005년 대전 논산 지구 제2기 가톨릭봉사자 10주 과정

일 시 : 2005년 10월 4일~ 12월 6일
(매주 화요일 오후 14:00~16:00,
19:00~21:00)

장 소 : 전민동 성당/ 참석인원 : 153명



시 상 : 개근 56명

내용

- 1주 신앙교리 (대전교구 사목기획국장 광승룡 신부)
- 2주 성서 (오남한 신부)
- 3주 기도 (임현옥 신부)
- 4주 미사전례 (나기정 신부, 대구대교구)
- 5주 전교 (김영근 신부)
- 6주 소공동체 (광승룡 신부)
- 7주 교구재무행정, 사무행정 (김영곤 신부, 이원순 신부)
- 8주 봉사자의 리더쉽 (강석준 신부)
- 9주 천주교의 상장례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김득수 고문)
- 10주 교회법 (광승룡 신부)



각 본당과 제 단체장 연수회

일시 : 2005년 12월 3일-4일

장소 : 정하상 교육회관

주제 : "순교신앙으로 선교하자."

참석인원 : 110명

내용 :

첫째날 - 개회미사-주교님 사목교서 해설

제1강의 이창순 야고보

참석자 소개와 친교의 시간

둘째날 - 미사

제2강의(순교신앙을 살자)

대화와 발표의 시간

실전 사목계획서 작성

- 2005년 대전교구 신심사도직 단체장 송년 간담회

일시 : 2005년 12월 17일 16:00~

장소 : 성남동 청소년 회관



참석 : 29개 단체 중 20개 단체장 , 7개 동호회 중 6개 동호회장 참석 총 58명

내용 : 말씀의 전례, 찬양 팀(2개 팀) 찬양, 보고, 주교님 말씀, 강복, 식사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대구지하철참사 2주년 추모제

대구 지하철 참사 2주기 “사랑의 추모음악회”가 지난 2월 21일(월) 오후 7시30분 성 김대건 성당에서 열렸다.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용기)가 마련한 이날 음악회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과 추모시 낭송으로 시작돼 여성 중창과 가야금 독주, 오르간 독주, 성악가 독창, 대구 브라스 권켓의 금관 오중주로 이어졌고, 대구가톨릭음악원 합창단의 합창으



로 마무리됐다.

- 제30회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
대구 평협은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 대회를 5월 29일(일)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



캠퍼스에서 개최했다. 교구 평협이 주최하고 대구대교구 가톨릭 체육인회(지도신부 : 전광진 엘마노/ 회장 : 김선웅 요셉)가 주관해 열린 테니스대회는 2005년에 30회째를 맞이해 본당 25개 팀, 직장 13개 팀, 가족(부부)청년부 개인복식 5개 팀, 가족(부부)장년부 개인복식 4개 팀, 남성 개인복식 9개 팀, 여성 개인복식 6팀이 함께 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 캠퍼스 테니스구장과 보조구장에서 각각 나누어 경기를 치른 이날 단체전 교회대항에서는 성 요셉 본당이 우승, 대잠본당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경산성당B팀과 성 김대건 성당 A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직장대항부분에서는 가톨릭의료원A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B팀이 준우승, 대건고등학교 A팀과 효성여고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또한 각 순위 시상 외에 성산본당과 교구청이 모범단체상을 시상했고 사동성당과 효성여고가 응원단체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 본당 평협 회장단 연수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용기)는 사도직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본당 평

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7월 3일(일) 오전10시부터 교구청 별관1층 대회의실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교구 42개 본당 81명의 평협 회장단이 참석한 이날 연수에는 류승기 신부의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정체성(교구 본당 구조개편의 참된 취지 및 본당 평협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특강과 참석자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또한 “복음나누기 방법과 실습”을 통해 다시 한번 평신도사도직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 제23차 교구 평협 정기총회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5, 6일 이틀간 ‘한티순교성지 피정의 집’에서 교구 내 71개 본당 평협 회장과 교구 인준 47개 단체 회장 등 12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예·결산 보고에 이어 가진 임원 선출에서 이용기 회장을 유임시켰다. 부회장엔 전병인 운영수, 이태수, 이선자, 양해동 씨 등이 유임되거나 새로 선임됐다. 새 집행부는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들과 함께 앞으로 2년간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를

이 끌어 간다.

이날 교구장이 문희대주교



는 「2006년 사목지침 ‘청년 복음화의 해’에 대해」를 통해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에는 모범된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하여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 것”을 강조했다.

류승기 지도신부는 「평신도사도직단체의 정체성과 역할」 주제의 강의에서 “이제 교회의 성패는 평신도들에 달려 있다”며, “평신도들이 달라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를 통해 바뀌어야 하며 (쇄신), ‘매주 모이기’ ‘복음나누기’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한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사도직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이상재 신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가야 하며, 비전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 틈틈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자는 유정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 2005 통권 제18호 평협지 발간

2005년 平協誌 “대구평협”(통권 제18호)이 11월 초 발행됐다. 이번 평협지는 평신도 누구나 쉽게 평협지를 접할 수 있고 직접 제단체별

로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사도직을 실천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 예년보다 다채롭고 읽을거리가 있는 풍성한 평신도 소식지로 선보였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장배 테니스 및 족구, 피구 대회 개최

제16회 교구장배 테니스 대회와 족구 피구 대회가 지난해 6월 6일 안동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테니스대회는 21개 본당에서 21개 팀 등이 참가해, 각 본당별 응원팀까지 합쳐 약 1000여명의 교우들이 모여 친교와 화합의 잔치를 벌였다. 특히 해가 더할수록 각 본당별 응원전도 치열해지면서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으며 앞으로 교구 전체 체육대회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전 교구민들의 큰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교구 순교자 현양 기념 발표회 개최

순교자 성월을 기해 안동교구 평협이 격년으로 개최하는 기념 발표회가 2005년 9월 27일 가톨릭 상지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17개 본당에서 18팀이 합창, 연극, 풍토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준비한 이 행사는 예년에 비해 각 본당에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내용으로 준비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안동교구의 순교자인 파리외방전교회 강 갈레 신부와 박상근 마티아를 주제로 한 연극은 참가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 많은 이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 제1회 교구장배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개

제1회 교구장배 게이트 볼 대회가 안동시 영호대교 밑에 자리하고 있는 영호 게이트볼 구장에서 지난 10월 3일 열렸다. 18개 본당에서 20개 팀이 참가해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솜씨를 겨루는 신나는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 특히 각 본당에서는 사목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응원팀들이 500여명이 참가해 어르신들에게 음식과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004년도에 평협회장 초청 행사로 치른 게이트볼 대회를 2005년도에는 교구장배 대회로 승격시켜 개최함으로써 이날 참가한 모든 이들이 교구 내 어르신들을 위한 큰 축제의 행사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

- 2006년 정기총회

안동교구 평협은 지난해 12월 3일 안동 가톨릭회관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어 2006년에는 교구 사목목표인 '지역선교와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희용(마태아, 상주 남성동성당)씨를 새 회장으로, 정동진(프란치스코, 안동 정상동본당)씨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단체 평협 임원 연수회

○일시 : '05.10.15(토)

○장소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참석인원 : 60여명

- 제1회 교구체육대회

○일시 : '05.11.13(일) 09:00~17:00

○장소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운동장

○참석인원 : 교구장 대주교님 및 각 지구평협 대표선수 700여명

○행사내용

- 줄다리기 등 6개 경기 종목을 가지고 지구별 대항
- 교구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다음해에는 더욱 알찬 행사로 발전을 다짐

- 제3회 학술회의 개최

○일시 : '05.12.4(일) 14:00~17:00

○장소 : 천주교 임동 주교좌성당 대강당

○내용

- 제1주제 : 교우촌의 형성과 영성에 관한 고찰(옥현진 신부)
- 제2주제 : 순교자의 영성 (이성열 가브리엘 형제)



- 광주평협 2006년도 정기총회 : 제29대 회장 정기수씨

광주대교구 평협은 지난 1월 21일 광주가톨릭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



를 열고 새 회장에 정기수 스테파노 사무국장을 선임했다. 또한 부회장에 홍의웅 미카엘씨를 선출하고 사업보고와 결산,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전주가톨릭센터 기공식

전주교구 가톨릭센터기공식이 지난해 9월 1일(목) 오후 3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78 - 3번지(옛 전주공전 터) 신축부지에서 있었다. 교구장 이병호(빈첸시오) 주교의 주례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평신도, 교구출신 서울지역 신자, 강현욱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관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감격을 함께 나눴다.

이날 이주교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염원으로 안고 살아온 이일이 시작됐다”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집을 지어왔고 오늘 이 순간부터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집 짓는 일이 하느님께는 영광이요 주변 세대에는 빛이 될 수 있도록 각자 기도로 먼저 마음의 성



전을 지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이 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선한 세상 만들기’의 본부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기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가톨릭센터는 2006년 11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교육문화관은 교구설정 70주년이 되는 2007년에 완공돼 순교자 성지인 치명자산과 전동성당을 잇는 뜻 깊은 명소로 이 지역 복음화의 요람이자 신앙교육과 교회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 전주에 국제 종교성지 조성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중바위 성지 ‘치명자산(지방기념물 68호)’과 다가동 전주예수병원 일대 등이 국제적 종교성지로 조성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31일 전주 주변에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등의 시설을 국제 성지로 조성하기 위해 조만간 6천만원을 들여 ‘전주종교 성지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현재 종교성지 조성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치명자산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성지와 예수병원과 신흥학교 일대의 기독교 성지, 승암사·동고사·남고사 등 불교 성지 등이다. 전주교 전주교구의 경우 이미 치명자산

자락에 있는 옛 전주공전 부지에 가톨릭센터 등 전주교 관련 성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시도 치명자산 일대에 집회와 공원, 숙박 시설 건립 등 국제성지조성 사업을 구상중이다.

- 김정고부지구 체육대회

전주교구 9개 지구 중 김정고부지구가 경규봉(가브리엘, 시기동) 지구장 신부와 각 본당신



부를 모시고 10월 2일(일) 오후 신태인 실내 체육관에서 친선족구대회를 가졌다. 풍성한 먹을거리로 흥을 돋우며 즐겁게 보낸 이날 행사에서 묵주기도처럼 아름답게 경기를 한 시기동성당은 로사리오상을, 장미처럼 정열적으로 실력을 발휘한 부안성당은 장미상을, 코스모스처럼 한들한들 오늘을 피운 요촌성당은 코스모스상을, 들꽃처럼 자유로우면서도 일치의 몸짓을 보인 연지동성당은 들국화상을, 활짝 피어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지킨 원평 성당은 무궁화상을 받았다.

축사에서 서동호(바오로) 전주교구 평협회장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구 내 각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다지며 이를 바탕으로 본당과 지구 더 나가서 교구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고 했다.

- 은퇴 선교사제 초청 평신도와의 간담회

전 주평협은 40여 년간 전북지역 발전과 전주교구발전을 위해 헌신한 세 분 사제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위로의 뜻으로 전북도민증과 전



주시민증을 요청하여 윤에릭(에릭), 지정환(디디에), 배영근(요셉) 외국인 사제에게 전북도민증, 전주시민증을 수여했으며, 세 분 사제를 모시고 11월 25일 금양정에서 조출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평협 지도신부 조정오(요셉) 총대리 신부와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이 함께 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세 분 사제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감개무량해하며 우리 전주교구에서 사제생활을 해온 것이 보람 있고 행복한 생활로 주님의 은총이라고 말했다.

-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자 초청 위문

머나먼 타국에서 쓸쓸히 성탄절을 맞이한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족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교구 사회사목국 노동·농촌

이주 사목부(담당=박동진 신부)는 2005년 12월 24일 오후 4시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와 선너머 종합사회 복지관, 현대 자동차 가톨릭 사우회, 대우 웨딩홀, 포콜라레 회

원, FB 회원 등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대우빌딩 내



대우 웨딩 홀에서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족 초청 성탄절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정오 총대리 신부 주례의 영어 미사와 나눔 잔치, 단막극과 판소리 공연, 장기 자랑과 게임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과 가족과 봉사자, 평협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사와 저녁식사 후 쌀, 김,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 과자 등 성탄선물을 받고, 공연과 간단한 게임 등을 즐기며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탄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 했다.

● 2006년도 사업

- 2006년도 정기총회

전주교구 평협은 1월 7일 교구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교구 평협 여성분과 주관으로 올해 처음으로 출산장려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기로 하는 등 올해의 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교구설립 70주년을 앞두고 새 가톨릭센터 건립에 힘 쏟으며 교구 내 지구평신도회장단 협의회와 교구내 단체의 유기적 유대도 강화키로 했다. 교구 평협은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료활동을 펴는 한편 북한 이탈주민 위로 방문사업도 추

진키로 하며,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발행되는 평협 소식지를 통해 교구민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서동호(바오로) 현 회장을 2년 임기 회장으로 연임시키고, 새 감사에 박용철(스테파노) 서일본당 사목회장, 원수관(야고보) 전동본당 사목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 19대 임원 워크숍



전주평협은 1월 21일 전주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에서 '그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마태 12,21)를 주제로 임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제31차 정기총회 이후 새로 출범한 새임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2006년도 중점사업 계획을 비롯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복음선포 운동 전개, 가톨릭센터 신축 동참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련됐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8월 4일~7일 : 다미안회 소록도 나눔의 활동 격려금 전달
- 9월 12일~13일 : 수녀연합회 피정시 간식비 지원

- 9월 24일~27일 : 가톨릭 사진가회 사진전 참석 및 격려금 전달
- 10월15일-16일 : 신학생부모 피정시 간식비 지원
- 10월 20일 : 레지오 마리아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 -삼피소
- 11월19일-25일 : 제1회 성서전시회 참석 및 축하금 전달
- 12월 3일 : 가톨릭 사회복지회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 축복식 및 개원식 참석 및 축하금 전달
- 12월 5일 : 교구장님과의 공의회 공부 마침

전국 사도직단체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2005년 하반기 사업
- 영·호남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 일시 : 2005년 8월 4일 - 5일 (1박 2일)
 - 장소 : 전라남도 지리산 피아골 학생수련원
 - 참석 : 150여명
 - 주관 : 광주·대구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회장단 피정
 - 일시 : 2005년 12월 8일 - 9일(1박 2일)

장소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사문옥 계룡산
참석 : 26명
주관 :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 점자 신앙서적의 보급

가톨릭예비자교리서: 4질(12권), 점자성서: 66권, 점자기도서: 11권,
점자성가: 31권, 점자레지오교본: 6질(36권),
성서모임용 점자교재: 16질,
기타 점자서적: 76권

● 2006년도 상반기 사업

-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협의회 총회 및 간부 피정

일시 : 3월 중 (1박 2일)
주관 :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대상 : 각 선교회 회장단과 임직원
목적 :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협의회 주관 사업계획 논의와 예·결산보고를 하며, 피정을 통하여 임직원들의 영성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함.

- 전국 회장단 회의

일시 : 6·9월 중 (분기별 실시)
주관 : 지방선교회가 돌아가면서 주관
대상 : 각 선교회 회장단과 임직원
내용 : 각 선교회별 사업 보고와 각 선교회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협의하며 친목을 도모를 한다. 종전 12월에 했던 회장단 회의는 회장단 피정으로 휴식시간을 가지며, 총회를 대비하여 논의하고자 함.

-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아 피정

일시 : 5월 중 (1박 2일)
주관 : 수원선교회
대상 : 각 선교회 산하 레지오 단원
예상인원 : 150여명
목적 : 각 선교회별 레지오 활동보고와 총결산을 하고, 신앙체험을 통해 성모님의 군대로서 결의를 다짐한다.

- 전국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일시 : 7-8월 중 (2박 3일)
주관 : 대구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대상 : 전국 선교회의 시각장애인 회원, 그 가족 및 봉사자
참석인원 : 300-400여명
목적 : 활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심신활동이나 여가 선용의 기회가 부족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야영활동과 정안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친교를 나누고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협의회

- 제2회 전국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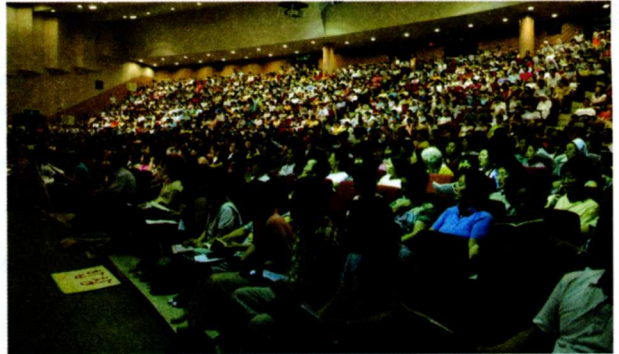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논산 씨튼 영성연구소에서 제2회 전국회의를 열어 각 교구 현황보고와 교구별 교육 자료 소개, 인천교구 서애숙 회장의 체험담을 들었다.

- 제13회 정기 총회

한국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협의회 제 13차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8일~19일 서울 장충동 분도 피정의 집에서 열렸다.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 감사보고와 2006년도 예산안 확정 및 각 교구 활동보고가 있었고, 수원교구 최병학 회장과 인천교구 서애숙 회장의 체험담 발표가 있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오 18,20)고 하신 우리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일치된 세계의 모형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담화와 경험담, 게임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으로 엮어졌다.



● 2006년도 사업계획

올해에는 회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 받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느끼고 그 분에 대한 사랑을 다짐함으로써 개별적으로는 물론 공동체가 함께 성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마리아 사업회

● 200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실적

- 여름 마리아폴리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는 여름마리아폴리를 1차-2005년 7월 23~26일, 2차-2005년 7월 27~30일에 걸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3,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평의회(연간 4회, 임원 40명)

하루 마리아폴리: 6월 6일 (서울 과 대구에서 각각 모임을 가질 계획)

여름 마리아폴리: 7월 27~30일 예정 (영남 지역은 따로 가질 계획)

포콜라레 회원 양성과 교육(연령별로 다양한 그룹 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교회일치운동, 타종교와의 대화, 운동들 간의 대화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톨릭 의료협회

- 한·일운영위원회(18차)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일본가톨릭(의료)시설협회(성마리아병원 외) 간 매년 양국을 오가며 정기 개최되는 한·일운영위원회 2005년 회의가 지난 7월 7~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다.



한국측 대표는 최영식 신부(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를 포함한 채영희 신부, 남옥운 수녀(이상 부회

장), 우영균 사무총장, 남궁성은/이기현 신부(이상 이사) 등 9명의 한국 측 대표가 참석했고, 일본측은 성마리아병원 이데 요시오 이사장 외 관계 임원 9명이 참석해 양측 간의 현안 및 의제를 협의했다.

주요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도 한·일 간 교류사업(연수, 파견, 교육 등)을 포함한 정례사업의 협의, 인간생명 존중의 가톨릭이념 실천을 위한 의료 활동에 양국 간의 공동노력 다짐, 한국의 인간배아복제 연구허용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과 특히 일본 측이 CMC(가톨릭중앙의료원)가 주체가 된 성체줄기세포 연구사업 참여와 사업의 모금파티(Fundraising)의 동참에 큰 관심을 보여, 한국 측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연구 프로젝트 내역을 전달하면 일본 측이 사업 참여에 관한 공식적인 의사를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한편 이번 제18차 운영위원회는 일본의 가톨릭

시설협회 전국대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추어 회의를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 생명윤리위원회 발족식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체줄기세포 연구 생명위원회 출범

2005.10.0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 정진석 대주교와 강영훈 전 총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 출범식을 갖고 성체줄기세포 분야에 세계 최대 규모인 1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교구는 총상금 3억 원의 '생명의 신비상'도 제정하여 성체줄기세포연구 분야에 큰 업적을 세운 인물을 포상하고, 생명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성체줄기세포 관련 연구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의료연구본부(위원장 최영식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를 설립 운영하며 생명존중 문화캠페인을 이끌어갈 생명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와 기획홍보단(단장 허영엽 신부),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단장 천명훈 가톨릭의대 교수)등을 운영기로 했다.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 세미나 및 이사회 열려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005년도 정기세미나가 2005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남 통영 마리나콘도에서 열렸다. 가톨릭의료협회가 출

범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정기세미나 행사에는 전국 회원병원의 중견 간부급 직원 및 보직자,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약사회 등 각 직능협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에서는 ① 생명윤리에 대한 이해와 가톨릭



릭병원의 역할과 과제(김중호 신부) ② 가톨릭병원의 블루오션 전략(송경근 대표) ③ 21C 글로벌 환경과 경제 트렌드(이영권 교수) 등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해외의료선교단 구성, 본당연계가장간호사위원회 구성 등의 분과위원회가 열렸고 행사에 앞서 가톨릭의료협회 이사회가 진행되었는데 공동구매 사업 추진건, 이라크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건 등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 협회 '의료스마트카드 도입 사업'



협회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스마트카드 도입사업이 사업자 선정 을 기점으로 200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업무를 개시했다. 의료스마트카드는 신용카드에 직접회로(IC Chip)를 내장하여 획기적인 메모리 기능강화와 함께 다양한 업무기능을 접목할 수 있어 병원 유비쿼터스화의 핵심인프라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내 교통분야 등 폭넓게 적용하고 있고, 병원산업

의 경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미 도입해 분야를 확대시키고 있어, 병원발전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 2005년도 주요 사업 실적

- 2005. 2. 28 ~ 3. 1 상반기 총회 (한남동 프란치스코 회관)
- 2005. 6. 5 ~ 6. 6 교구 ME 대표 간담회(대구)
- 2005. 10. 29 ~ 10. 30 하반기 총회(한남동 프란치스코 회관)
- 2006. 11. 5 세상을 떠나신 팀 신부님과 부님들을 위한 위령미사(서초동 성당)

● 2006년도 사업계획

- 2006. 1. 8 새 발표팀 부부를 위한 오리엔테이션(분도 회관)
- 2006. 1. 16 ~ 17 전국 팀 사제 모임(분도 회관)
- 2006. 2. 28 ~ 3. 1 상반기 총회(한남동 프란치스코 회관)
- 주요 동정
- 2005. 11. 7 ~ 12 제 30회 아시아 대회 참석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 대회 참석>